

보건소 영양업무 담당자의 직무만족도 및 직무능력 평가

박혜련*, 권지영, 조경자, 명지대학교 이과대학 식품영양학과

건강증진법의 제정과 지역보건법의 개정으로 보건소에서의 대국민 영양서비스가 중요업무로 인식되고 있고 많은 보건소에서 영양서비스가 수행되고 있다. 그러나 영양서비스 제공 인력의 자질과 교육, 훈련여건 및 보건소 내에서의 활동여건에 관한 조사보고는 많지 않았다. 본 연구는 현재 전국에서 영양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보건소 영양업무 담당자 58명 전원을 대상으로 그들의 업무여건과 직무 만족도, 자신이 평가하는 직무 능력에 관하여 5점 척도를 이용하여 본인이 직접 기록하는 방식으로 설문조사하였다. 직무만족도는 전문적 가치 실현, 업무 부담, 업무내용, 업무 재량권, 업무 성취도, 상사의 지도감독, 동료관계, 정책결정 참여도, 보수, 작업환경, 주민 서비스 제공 후 주민 반응, 예산 확보, 재교육 및 정보 취득의 기회, 교육 자료 및 기술의 보급, 자아성취 및 발전의 15분야로 구성하였고, 직무능력 평가항목은 미국 영양사회가 개발, 사용한 것을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보완하여 영양과 식사지도 분야 12항목, 커뮤니케이션 분야 8항목, 공중보건과학과 응용분야 7 항목, 경영 및 관리분야 6항목으로 구성하였다. 보건소 영양업무 담당자의 전공은 식품영양학(74.1%)과 간호학(13.8%) 등이었으며 영양업무 담당기간은 대부분 4년 이내(97.4%)였고 보수교육의 필요성은 전공, 연령, 경력과 무관하게 모두 필요하다고 대답하였다.

자기 진단 직무능력 평가점수는 학력, 연령, 영양지도원 경력과 무관하였으나 영양업무에 관한 지식과 기술이 전반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평가되었고(2.80 ± 0.68) 각 분야별 진단점수는 영양 및 식사지도, 의사소통, 관리, 보건과학과 응용의 순으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 < 0.01$). 직무 만족도는 보건소 근무경력, 영양업무 담당 기간에 따른 차이가 없었으며 분야별로 전문적 가치실현(3.35 ± 1.01), 업무의 내용(3.1 ± 0.88), 업무 성취도(3.08 ± 0.89), 동료와의 관계(3.84 ± 0.71), 서비스 제공 후 주민 호응(3.5 ± 0.62), 자아성취 및 발전(3.0 ± 0.82) 면에서 비교적 만족스러운 편으로 나타났으나 보수, 업무부담, 재량권, 근무환경, 정책 결정 참여, 예산 확보, 재교육 및 정보 취득의 기회 제공, 교육 자료 및 기술 제공면에서 상대적으로 불만족스러운 것으로 나타났다. 재교육 및 정보 취득의 기회면($p < 0.05$), 전문적 가치 실현($p < 0.05$)에서 영양지도원 2년 이상의 경력인 경우가 만족도가 높았다. 정책결정 참여면($p < 0.01$)과 보수면($p < 0.01$)을 제외한 모든 항목에서 식품영양 전공의 일용직 영양사가 간호학 전공의 정규직 영양업무 담당자보다 통계적인 유의성은 없으나 평균적으로 높은 만족도를 나타냈고 특히 전문적 가치 실현($p < 0.05$), 업무의 부담정도면($p < 0.05$)에서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현재 배치된 보건영양사들이 비록 자신이 영양서비스를 담당하기에 자질면에서 부족하다고는 생각하고 있지만 보건소 영양업무를 보람있는 전문직종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안정된 지위확보와 자질향상을 위한 제반 여건 해결이 시급할 것으로 평가되었다.